목표 아닌 은혜가 생의 추진력

(예레미야 8:1~22)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2.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3.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목표 아닌 은혜가 생의 추진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목표 아닌 은혜가 생의 추진력'
우리는 생의 에너지 즉 삶의 추진력을 어디에서 얻고 있을까요?
보통 생의 목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생의 목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작용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긍정적 목표는 성취를 향한 것이고, 부정적 목표는 결핍을 메꾸거나 복수심이나 한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자로 살리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부정적 목표의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삶의 추진력이 생긴다는 말에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인생에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를 욕심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추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공짜입니다. '은혜로 추진된다.'라는 말은 곧 내가 추진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추진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아닌 삶은 다 욕심이고, 욕심대로 산 삶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차'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욕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으로부터 40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를 예언하는데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라고 하였습니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당한 이들을 능멸하고 모욕감과 좌절감을 주기 위한 태도일뿐더러, 무덤 속의 부장품들을 탈취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일월성신을 섬겼지만 그들의 뼈가 도굴되는 상황에 이르러도 그 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는 말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일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기에 죽기를 바라지만 지옥에서는 이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옥의 광경이 벌어질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무덤'이라는 말을 맨 먼저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덤은 곧 죽어서 묻힐 곳입니다. 따라서 무덤이 능멸을 당하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민들은 삶에서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고서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이 편안했을 때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소원을 할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에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편안한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명의로 된 첫 번째 땅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하려 했던 막벨라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죽은 후에 묻힐 무덤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 꿈에 부풀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죽음을 생각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어떤 것도 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어떠한 복도 마음에 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야 갖게 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는 바람을 진즉에 가졌어야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지를 주셨으면 그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지를 주셨으면서도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한 어떤 꿈도 꾸지 말 것을 바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6장에 나타납니다. 4~5절의 쉐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다하여'라는 말에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과 뜻과 힘을 적당히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남김없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죽어버린 삶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6장 10~1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요새도 부동산 때문에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땅을 공짜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기 바라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고 했으며, 삶의 기반이 되는 우물이나 밭도 차지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

다. 이것은 은총으로 추진되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잘못된 교육아래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래의 삶은 100% 공짜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고 났더니 세상에 대해서는 지불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사업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다 썼기 때문에 세상 문제들에 사용할 마음의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에덴이고 가나안 복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향해 다 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민들에게서조차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기에 하나님은 이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노라 추진하는 삶을 살다가도, 선민이라면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올 줄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고 하였습니다. 또 6절에서도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제멋대로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 추진하는 모습을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에 비유를 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우리가 앞서 본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야 깨닫는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마침내 죽고 지옥까지 가서야 ‘이제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 하는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옥의 소원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

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선민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점에 나가보면 지혜에 대한 책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혜, 자녀양육에 대한 지혜, 대학입시에 대한 지혜를 비롯해 각 주제마다 지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세상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것들은 결코 참된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할지라도 바보들의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10~11절을 보면 앞서 6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욕심이 앞서 언급했던 히브리어 바차입니다. 바차는 '잘라서 끊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직기로 피륙을 짭니다. 어느 정도 천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남은 실들을 끊어서 잘라냅니다. 바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말로써 전체에서 일부를 끊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욕심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욕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바차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하나, 먼지까지도 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담았습니다. 건강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은 욕심입니다.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임의로 끊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실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내 마음대로 끊어냅니다. 이것이 도둑질이고 욕심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본래와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낯설게 여겨지고 이상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본래는 육체로 만나는 어떤 것도 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총으로 진행되어 갈 일들을 내가 끊어냄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욕심을 인정해주고 권유해 주기까지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마음에 담고 고민하는 부모가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이때의 진짜 문제는 부모의 마음에 담긴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마음에 담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 채로 잘 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없는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임의대로 끊어내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기는커녕 원하는 대로 번영할 수 있다고

인정해줍니다. 이 역적 같은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격체로써 세상에서 대체 뭘 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주체적 인격체로써 마땅히 가져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지구에 인간을 살게 하시고 지구 밖에는 무한한 우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써 하나님은 무한한 금광과 같습니다. 오늘 금을 아주 많이 캐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금이 나오니 내일도 최고로 만족스럽습니다. 최고로 만족했는데 그 만족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항상 일시적이기에 계속해서 다른 만족을 찾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은 무한대이고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보면 만족한 나머지 스데반처럼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일 참수를 당한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차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셨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삶의 추진력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절로 이루어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신앙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삶의 상황에 맞추어진 설교를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말씀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담대하게 전할 때에 부서지고 수술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삶의 모습을 용인하는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수록 삶은 거짓이 되어갑니다. 단지 놀고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민들이 일월성신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

르며 구하며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가 중단된 삶에는 결국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대해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추진력은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세상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해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은총에 의해 추진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